

시오가마 냉천

이 작은 표주박 모양의 연못은 ‘시오가마 냉천’의 수원(水源)입니다. 이곳에서는 1 초당 300L의 냉수가 땅에서 솟아납니다. 가장 깊은 부분은 1.9m로 1년 내내 수온은 약 11도로 유지됩니다.

냉천은 화산 인근에서 많이 발견되며, 빗물이 안산암과 굳은 화산재에 침투해 산기슭 근처에서 표면에 드러나면서 만들어집니다. 시오가마 냉천은 나카히루젠 기슭에 있으며, 가끔 관광객이 등산 입구 근처에 있는 샘에 들러 여행 기념으로 병에 물을 담습니다.

시오가마 냉천의 물은 미네랄 함유량이 굉장히 낮고 맑은 중성 수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샘은 약 600 세대에 물을 공급합니다. 마시는 물, 요리, 차나 커피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물을 길으러 오는 주민도 있습니다.

환경청이 시행한 2015년 ‘명수 백선 선발 총선거’에서 시오가마 냉천이 ‘관광지로서 훌륭한 명수 부문’ 2위로 선정된 것에서도 얼마나 맛이 좋은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샘으로 이어지는 길 도중에 하얀 띠 모양의 종이(가미시테=신도(일본 고유의 민족종교)의 신성한 공간을 나타내는 장식)를 매달고 꼬아 놓은 밧줄이 눈에 띕니다. 이는 신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아사히카와의 원류로 관개 용수를 제공해온 시오가마 냉천은 히루젠의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므로 예로부터 현지인들이 숭배해왔습니다. 매년 6월 20일에는 냉천이라는 축복을 우러러 받들며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이 거행됩니다.

시오가마 냉천을 거처로 삼는 희귀한 동식물종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테두리의 넓은 반투명 갈색 껍질이 눈에 띄는 담수 고둥, 물달팽이(*Radix auricularia japonica*)입니다. 이름은 일본어로 ‘물건을 씻는 고둥’이라는 뜻으로 이 고둥이 조류(藻類)나 부패한 유기물을 먹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둥 덕분에 연못은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